

KIA 차세대 '안방마님' 한준수 "초심으로"



공·수 아쉬움에 경기중 교체되자 "정신 번쩍 나" 이범호 감독 "주전 가는 길 상황 맞는 플레이를"

사령탑의 애정 어린 질책에 '차세대 안방마님'의 정신이 번쩍 들었다.

KIA 타이거즈 한준수는 지난 24일 두산 베어스와의 경기에서 8번 타자 겸 포수로 선발 출장했다. 이날 한준수는 황동하와 '신에 배터리'를 구성했지만 경기를 마무리하지 못했다.

한준수는 4회초 수비 때 김태근으로 교체돼 벤치에서 남은 경기를 지켜봤다. 부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이범호 감독이 한준수에게 메시지를 주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한 '교체 카드'였다.

이날 경기 전까지 KIA는 3연패를 기록하고 있었다.

이범호 감독은 "젊은 선수들과 시너지를 내보자는 생각으로 3경기 연속 한준수를 포수로 했는데 투 아웃 이후 실점하는 등 3경기 흐름이 다 비슷했다"고 설명한 뒤 이날 3회초 김재환에게 홈런을 내주는 장면을 언급했다.

공격에서도 아쉬움이 있었다.

0-3으로 지고 있던 3회 무사 2루에서 한준수는 이날 첫 타석에 들어섰다. 그리고 벤치의 바람과 달리 진루타를 기록하지 못하고 중견수 플라이아웃으로 물러났다.

이범호 감독은 "3점을 지고 있었다. 주자를 3루로 보내고 득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줘야 했다"며 "주전으로 가야 하는 선수다. 조금 더 공부들

하면 좋겠다. 투수들 구종과 상황에 따른 불배합 등을 생각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밝혔다.

25일 김태근으로 경기를 풀었던 이범호 감독은 26일 다시 한준수를 8번에 배치해 안방을 맡겼다.

이 경기에서 한준수는 첫 타석에서 불넷을 골라낸 뒤 박찬호의 홈런으로 득점을 기록했고, 4회 무사 1루에서는 안타도 추가했다.

또 이날 5-1로 앞선 9회초 마지막 수비에서 장현식이 1실점을 하면서 쫓기던 2사 1루에서는 급히 출격해 마무리 정해영과 호흡을 맞춰 3점 차 승리를 지켰다.

경기가 끝나고 난 뒤 한준수는 "아웃카운트 하나 남았으니까 강하게 전력으로 해주라고 정해영에게 주문했다. 라모스한테 안타 맞은 건 어쩔 수 없으니까 다음에 잘 막자는 생각이었다. 팀이 이겨서 다행이다"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팀의 4연패를 막지 못했지만 연승을 만들면서 마음의 짐을 던 한준수는 남은 시즌 '초심'으로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는 각오다.

한준수는 "시리즈 첫 번째 경기 이후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기본적인 것인데 그 기본적인 게 안 됐다. 내 입장에서 화도 났고 다시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됐다"며 "다시 선발로 나가면서 처음부터 집중을 해보자는 생각으로 집중했다. 생각도 많이 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더 잘하면서 팀에서 기대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4일 두산과의 경기 도중 교체됐던 KIA 타이거즈 한준수가 '기본'에 집중해 팀 승리에 역할을 하겠다는 각오다.

(KIA 타이거즈 제공)

"LPGA 우승 퍼트보다 더 떨렸어요"

KIA '전팬' 이미림 골퍼 시구



"우승 퍼트보다 시구가 더 떨렸어요."

'호수의 여왕' 이미림(NH투자증권)이 골프공이 아닌 야구공을 들고 사람들 앞에 섰다. 그는 지난 26일 KIA 타이거즈와 두산 베어스의 경기 시구자로 챔피언스필드를 찾았다.

무등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며 프로 골퍼의 꿈을 키운 그는 부모님의 영향으로 어렸을 때부터 야구, 타이거즈를 좋아했다. 이미림은 KIA의 올 시즌 개막전을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에서 지켜보기도 한 '전팬'이다.

현재 부상 재활 중인 그는 "원래는 미국 투어를 하다 보니까 올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없었다. 지금

쉬면서 할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야구를 봐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야구장 '도장 개기'를 하는 게 목표다"고 미소를 지었다.

복귀 준비를 하면서 야구로 힘을 얻고 있는 이미림은 직접 시구자로 마운드에 올랐다.

경기 전 "마운드가 정말 멀다. 한 번도 던져본 적이 없는데 똑바로 던지는 게 목표다"고 언급했던 그는 마운드 위까지 올라서 공을 던졌다. 미트까지 이르지 못했지만 포수 앞에 살짝 바운드 되는 공을 던져 박수를 받았다.

자신이 좋아하는 양현종의 지도로 시구 연습을 한 이미림은 "양현종 선수님이 시구하러 오시면 남자, 여자 모두 마운드로 끌고 간다고 하셨다. 처음에는 앞에서 연습하다가 뒤에 가서 던졌다. 생각보다 잘 던진다고 해주셔서 마운드 위에서

던졌다"며 "조금 짧아서 아쉬웠는데 그래도 똑바로 날아갔다"고 웃었다.

'특급 시구'를 선보였지만 이미림은 사실 긴장을 많이 했다.

LPGA 투어 2017 KIA 클래식 우승자인 이미림은 2020 ANA 인스퍼레이션에서는 연장 승부 끝에 LPGA 4번째 우승이자 메이저 우승까지 차지한 '강심장'이다. 그런 그에게도 '시구'는 어려운 일이었다.

이미림은 "시구하는데 정말 많이 떨렸다. 우승 퍼트보다 더 떨렸다. 우승 퍼트는 정말 거짓말 안 하고 하더라도 안 떨린다. 내가 시할 때는 긴장을 많이 안 하는데 시구할 때는 너무 떨렸다. 마운드에서 내려오는데 관중이 하나도 안 보였다. 긴장이 풀리니까 1회부터 3회까지 경기를 못 봤다"며 "소

리로 흥분된 것을 알았다. 너무 떨리고 긴장했는데 정말 좋았다. 그리고 경기를 이겨서 정말 좋았다. 내가 시구를 했는데 KIA가 지면 안 되니까 걱정을 했다. 비 예보도 있어서 걱정했는데 너무 다행이다"고 이야기했다.

이미림이 말하는 야구의 매력은 공 하나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있다는 점이다.

그는 "야구와 골퍼는 비슷한 점이 있는 것 같다. 야구는 공 하나하나에 감정 변화가 큰데, 골프도 마찬가지다. 그게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야구장에서 새로운 기운을 얻은 이미림은 '우승 컵'을 들고 다시 챔피언스필드를 찾겠다는 각오다.

이미림은 "미국에서 웨이트를 하다가 어깨가 안 좋아졌다. 쉬면서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취미 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있다"며 "곧 복귀를 하니까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다. 시구가 나에게 큰 힘이 됐다. 골프 잘하고 우승해서 한 번 더 던져보고 싶다는 생각도 하게 됐다. 좋은 모습을 팬들 앞에 다시 시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LPGA·PGA 한국인 우승 보고 싶다

US여자오픈 30일 개막... '2015년 우승' 전인지 등 20명 시즌 첫 승 별러

시즌 두 번째 메이저 대회인 US여자오픈 골프대회가 30일부터 나흘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의 랭커스터 컨트리클럽(파70·6583야드)에서 열린다.

올해로 79회째인 US여자오픈은 1998년 박세리의 '맨발 투혼' 우승을 시작으로 2005년 김주연, 2008년과 2013년 박인비, 2009년 지은희, 2011년 유소연, 2012년 최나연, 2015년 전인지, 2017년 박성현, 2019년 이정은, 2020년 김아림 등 한국 선수들이 유독 자주 우승한 메이저 대회다.

올해 대회에도 출전 선수 156명 가운데 한국 선수 20명이 우승에 도전한다.

특히 한국 선수들은 올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시즌 개막 후 12개 대회에서 한 번도 우승하지 못해 이번 대회에서 시즌 첫 승을 노린다.

한국 선수의 메이저 최근 우승은 2022년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의 전인지다. 올해 US여자오픈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선수가 바로 전인지다.

올해 대회 장소에서 열렸던 2015년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전인지는 9년 만에 다시 정상에 오른다.

LPGA 투어 4승 가운데 3승을 메이저 대회에서 따낸 전인지는 2015년 US여자오픈 우승 이후 랭커스터 지역과도 긴밀한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당시 LPGA 투어 비회원인 US여자오픈에서 우승했던 전인지는 이후 "US여자오픈 우승으로 LPGA 투어에서 뭘 기회가 생겼고, 꿈을 실현할 수 있었다"고 랭커스터와 인연을 소중히 여겼다.

전인지 랭커스터CC 장학 재단을 만들어 지역 학생들을 위한 기부에도 나섰고, 지난해에는 랭커스터 지역 사회 공헌 활동을 활발히 한 공을 인정받아 LPGA 투어가 주는 글로벌 임팩트 어워드 초대 수상이자 됐다.

2022년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우승 이후 랭커스터에 들러서 귀국하는 등 이 지역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다.

전인지는 최근 대회인 미즈호 아메리카스오픈 공동 14위로 시즌 최고 성적을 내며 상승세를 타고

있다.

2019년에 메이저 2승을 거둔 고진영은 5년 만에 메이저 우승에 도전한다.

김효주, 유해란, 최혜진, 김세영, 신지에 등도 출전한다.

올해 파리 올림픽 출전은 6월 24일 세계 랭킹을 기준으로 정해지는데 그 전에 메이저 대회는 이번 US여자오픈과 6월 KPMG 여자 PGA 챔피언십, 2개가 열린다.

세계 랭킹 15위 이내는 한 나라에서 최대 4명, 그 이후로는 한 나라에서 최대 2명만 올림픽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19위 양희영, 20위 신지에, 26위 유해란 등은 메이저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올려야 15위 내 진입 가능성을 키울 수 있다.

양희영은 2015년 이곳에서 열린 US여자오픈에서 전인지에 이어 준우승했다.

올해 시즌 첫 메이저 대회였던 4월 세브론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세계 1위 벨리 코다(미국)와 지난해 우승자 엘리슨 코프츠(미국) 등이 출전한다.

신인상 부문 2위를 달리는 임진희와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소속 김민별, 김수지, 박현경 등도 '메이저 퀸'에 도전장을 던졌다.

/연합뉴스

김주형·김성현·이경훈 PGA 캐나다오픈 도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RBC 캐나다오픈(총상금 940만 달러)이 오는 30일 캐나다 온타리오주 해밀턴에서 개막한다.

이 대회는 특급 대회 메모리얼 토너먼트, 메이저 대회 US오픈을 앞두고 열리는 탓에 많은 톱 랭커들이 불참한다.

세계 랭킹 10위 이내 선수 가운데 3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만이 출전한다. 12위 사히스 시갈라(미국)가 뒤를 잇는다.

한국 선수들로서는 시즌 첫 승을 닦을 기회다.

투어 3승의 김주형은 올해 출전한 15개 대회에서 한 번도 15위 이내에 들지 못했다. 최고 성적은 2월 WM 피닉스 오픈에서의 공동 17위다.

다만 이날 들어 반등의 기미가 보이는 것이 고무적이다.

지난 6일 더 C.J.컵 바이런 넬슨을 공동 52위로 마친 김주형은 웰스파고 챔피언십(47위), PGA 챔피언십(26위)을 거쳐 27일 찰스 슈와브 켈린지에서 공동 24위에 올랐다.

PGA투어닷컴도 김주형을 이 대회 파워랭킹 11위에 매기면서 부진이 시즌 중반까지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밖에 한국 선수로는 김성현과 이경훈이 출전

한다.

김성현은 더 C.J.컵 공동 4위 이후 주춤하고 있고, 이경훈은 올해 톱 10에 두 차례 진입한 가운데 5차례 컷 탈락하는 등 기록을 보인다.

매킬로이는 2019년, 2022년 대회에서 우승한 기록을 되살리고자 한다.

특히 올해 대회는 2019년 개최지였던 해밀턴 컨트리클럽(파70·7084야드)에서 열린다. 당시 매킬로이는 대회 최소타 기록(22언더파 258타)도 세웠다.

다만 해밀턴 컨트리클럽은 그 이후 재단장 작업을 거쳐 총길이와 넓이가 늘었고 그린 위치가 많이 바뀌었다.

2022년 대회 우승은 매킬로이가 PGA투어에서 처음 성공한 타이틀 방어이기도 했다. 2020년과 2021년은 코로나19 여파로 열리지 않았다.

디펜딩 챔피언 닉 테일러를 비롯해 코리 코너스, 테일러 펜드리스 등 캐나다 선수들은 내셔널 타이틀 지키기에 나선다.

지난해 테일러의 우승은 1954년 팻 플래처 이후 69년 만에 나온 캐나다 선수의 캐나다오픈 우승이었다.

/연합뉴스

광주일보 72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SINCE 1952